

러시아 우주선 엔진 가동으로 우주정거장 또 ‘흔들’

러 영화 촬영팀 지구 귀환 준비하다 57도 기울어 ‘긴장’
지난 7월 나우카 사고 이후 두 번째...“원인 조사 착수”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영화를 찍은 촬영팀을 태운 러시아 유인 우주선 ‘소유스 MS-18’이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으나 지구귀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주정거장이 균형을 잃고 기울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와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소유스 MS-18은 지난 15일 오전(이하 미국 동부시간) 지구귀환 준비를 위해 엔진을 시험가동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시간에까지 않아 추공장만 한 우주정거장이 정상 자세보다 57도 기울는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성명을 통해 지상관제소의 신속한 조치로 곧바로 균형을 되찾았으며, ISS와 우주비행사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러시아의 다목

적 과학·연구 실험실용 새 모듈 ‘나우카’(과학)가 ISS에 도킹한 뒤 추진엔진이 갑자기 가동되는 바람에 한 바퀴 반(540도)을 돈 뒤 정상을 찾는 사고에 뒤이어 발생한 것이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유스 MS-18은 지난 4월 ISS에 도킹했으며 이를 뒤인 17일 러시아 영화 촬영팀을 태우고 지구로 귀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대변인은 러시아 측이 “오전 5시2분께 소유스 MS-18의 엔진 시험가동을 시작했으며 예정된 시험이 끝난 뒤에도 예기치 않게 계속 가동되면서 5시13분께 우주정거장의 자세 제어력을 잃게됐다”고 설명했다.

우주정거장이 기울면서 미국과 러시아 지상관제소에서 우주비행사들에게 비상 대응을 시작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

렸으며 약 30분만에 정상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NASA 당직 관제사 티모시 크리머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소유스 MS-18의 엔진이 “지정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꺼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NASA와 로스코스모스는 나우카에 이은 이번 소유스 우주선 엔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위해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ISS 운영에서 지난 20여년간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협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ISS를 2030년대까지 연착해 운영하길 바라고 있으나 러시아는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25년께 철수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달 및 화성 탐사로 우주굴기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과 달 탐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친중 행보도 보이고 있어 미묘한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다. /연합뉴스



지구로 귀환한 영화 촬영팀 우주에서 영화를 촬영한 러시아의 감독과 배우, 우주비행사가 유인우주선 ‘소유스 MS-18’ 귀환 캡슐을 타고 1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제스카즈간 초원지대에 착륙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2일간 장편 영화를 찍은 뒤 이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테러와의 전쟁’ 20년간 미군 3만여명 자살

브라운대 보고서, 전사자의 4배 “전쟁 후유증 심각”

9·11 사태 이후 20년간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 참전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가 정부 자료 및 2차 문헌,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아프간전 및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 가운데 3만177명이 자살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사자 7천57명의 4배가 넘는 수치다.

보고서는 참전자들의 자살률이 민간인들의 자살률과는 점을 지적, 통상 군인들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을 밑돌았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자살의 요인은 복합적이라면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군대 특유의 문화와 훈련, 지속적인 총기 사용, 복귀 후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

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적대세력의 급조폭발물(IED) 사용 증가로 외상성 뇌손상 발생이 늘어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부상자들이 후송되는 대신 치료 후 전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복합적 트라우마 발생 상황에 노출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게다가 전쟁이 장기화하며 일반인들의 무관심을 부채질했고 이는 참전자들의 사회 복귀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딸 제니퍼, 승마 선수와 결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전 아내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의 장녀가 16일(현지시간) 결혼식을 올렸다.

뉴욕포스트와 피플은 제니퍼 게이츠(25)가 이날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말 목장에서 신랑 나엘 나사르(30)와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고 보도했다.

나사르는 이집트계 미국인인 프로 승마 선수로, 올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다.

제니퍼 역시 한때 승마 선수로 활동했으며 둘은 지난해 1월 약혼 사실을 공개

한 바 있다.

제니퍼는 유명 디자이너 베라 왕이 맞춤 제작한 신부복을 입고 예식장에 나타났다.

예식장에선 빌과 멀린다가 신부와 함께 입장했다.

이날 결혼식이 열린 말 목장은 제니퍼 소유로 가격이 1천600만 달러(약 189억원)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결혼식은 최근에 목장 내에 건축된 건물로, 지붕과 벽이 모두 유리창으로 덮인 원형 식물정원 형태의 건물에서 치러졌다. /연합뉴스



결혼한 제니퍼 게이츠(왼쪽)와 나엘 나사르

中 언론,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 비판

보수층 지지 얻으려 전임자들 나쁜 선례 따르지 않길 바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과 관련, 중국 관영매체가 “나쁜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8일 “기시다 신임 총리가 취임 2주일 만에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 ‘나쁜 시작’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내 우익보수 세력의 증가를 보여주며 일련의 도발 행위로 중일 관계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 맞춰 공물을 봉납했다.

류장용(劉江永) 칭화대 교수는 일본 내 우익의 영향력 증가에 따라 일본 총리가 재임 기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퇴임 후 참배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파괴적이며, 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비교적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고 취임 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한 적이 없다”면서 전임자들의 선례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예대제 기간에 맞춰 봉납함으

로써 교묘히 피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작은 구멍으로 큰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면서 “나쁜 선례를 따르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즈강(志剛)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기시다 총리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주변국들을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기시다 총리가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자국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다 소장은 “중국이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무법천지’ 아이티서 美 선교단 17명 납치

납치 등 폭력이 끊이지 않는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에서 이번에는 어린이가 포함된 미국인 선교단 17명이 납치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치안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등 17명이 납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포르토프랭스의 한 보육원을

떠나려고 할 때 범죄단체에 납치당했으며, 선교단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납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교사들이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일부 선교사들을 내려주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납치된 것으로 현지 관리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납치된 일행 중 한 명은 소셜미디어(SNS) ‘왓츠앱’에 글을 올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며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을 납치한 갱단은 ‘400 마오조’라고 불리며 납치로 약 7명꼴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티는 수년간 정치적 혼란 상태를 겪고 있으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납치가 자행돼 오고 있다. /연합뉴스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